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영·호남 지자체 '맞손'

오늘 대구·광주시 포함 9개 지자체 실무자 회의

문재인 정부가 대구와 광주, 영·호남 상생협력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채택한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고속화 철도건설) 건설사업의 주동력 확보와 조기건설을 위해 영·호남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다.

대구시와 광주시를 포함해 관련 9개 지자체 실무자들은 1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별관 제1소회의실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현안사항 논의와 함께 실무자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1km

를 고속화 철도(200~250km/h)로 건설되며 시속비는 약 5조원 이상으로 전액 국비로 충당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내년에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해 인적·물적 교류 촉진으로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형성 기틀을 마련하게 될뿐만 아니라 대구시, 광주시, 고령군, 청천군, 거창군, 함양군, 남원시, 순창군, 담양군, 치악단체가 대도시권(Mega-City Region) 철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3월 가야문화권 17개 지자체협의회에서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19대 대통령선거 풍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지자체 주민들의 간절한 열원이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영·호남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남부지역 초광역경제권 구축 및 영·호남 지역발전에 있어 꼭 필요한 SOC 사업"이라며 "처음으로 관련 9개 지자체가 참여해 개최되는 실무자협의회는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시는 지난 17일 상하이시 공안국에서 한국, 미국, 독일 등 11개 대표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등기등록증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드 여파에도' 광주시 상하이사무소 법인등기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첫 해외사무소가 될 광주시 중구 상하이사무소 개소 절차가 사실상 미루리됐다.

광주시는 18일 중국 상하이사무소 법인설립등기 허가를 받은데 따라 12월 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상하이시 공안국에서 한국, 미국, 독일 등 11개 대표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등기등록증을 전달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해외사무소

12월 최초 해외사무소 개소 문화·경제교류 교두보 마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3월 22일 법인설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5월에는 상하이사무소 설립을 위한 주재관을 파견해 법인 등록을 추진했다.

상하이사무소는 광주시가 해외에 설립하는 첫 사무소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거점이 될 전망이다.

사무소는 오는 12월 1일 개소식을 열고 중국시장 개척과 통상 지원, 투자유치, 협력 교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와 중국 사이 경제·문화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하이사무소가 앞으로 광주지역 기업의 중국 진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지역 기업의 제품 전시나 상담장소 제공, 상담기업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14회 충장축제 화이팅" "세대 공감! 우리 모두의 추억"을 주제로 7개 분야 27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제14회 충장축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충장로 일대에서 막을 올렸다. 광주극장 옆 추억전시관 입구에서 연극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도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위기가 심화되는 농어촌지역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농어촌학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유한국당 강석호(경북 영양·

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국회의원이 '농어촌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

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직도 끌어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면지역에 1개 이상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운영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인력 배치 ▲농어촌지역 인접 도시지역은 공동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폐교 결정 시 학부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이다.

김성환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영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충장축제서 만나는 90년대 댄스음악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속의 그대', 혜진영 '흐린 기억속의 그대', 듀스 '나를 둘이봐', 평글 '영원한 사랑' 등 90년대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곡들의 커버댄스 경연대회가 충장축제에서 열린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추억의 충장축제 이름날인 19일 저녁 6시부터 5·18민주광장 주무대에서 대중문화의 전성기인 90년대 음악에 맞춘 댄스 경연대회인 '댄싱나인더(Dancing 90's)'가 펼쳐진다.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된 12개 팀이 경연을 펼치는 이번 대회는 기술·표현력, 일치도, 팀워크 등을 평가해 6개 팀에 상장과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풍암골 단풍축제

제9회 풍암골 단풍축제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개최된다. 풍암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2년마다 격년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자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화합과 문화 향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들의 솜씨자랑과 청소년 태권도·시범, 바이올린 합주 등 주민문화제가 열린다.

2부에서는 미술총회를 통해 풍암골 미술비전 선포와 주민이 바라는 미술의 모습을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색다른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3부 노래경연은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열띤 노래솜씨자랑을 펼치게 된다.

남구, 27일 그린마켓 재활용품 나눔 행사

광주 남구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서로 나누고 다시 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7일 '그린 마켓 아름다운 재활용품 기증·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가 주최하고 아름다운 가게 봉선점이 주관하는 '그린 마켓 아름다운 재활용품 기증·나눔의 날' 행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봉선동에 위치한 고백교회 주차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주민 및 공무원 등 지원에 동참한 주민들이 기부한 의류 및 신발, 가방, 잡화, 장식품 등 종교물품 수천점이 판매될 예정이다.

북구, 절주시책 우수사례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광주 북구가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절주시책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 지역사회 절주시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술병없는 건강한 마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절주시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이 절주시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주 관련 ▲자료개발 ▲프로그램 운영 ▲환경조성 등 4개 분야별 제출된 우수사례에 대해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로 이뤄졌다.

이에 북구가 제출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술병없는 건강한 마을사업'이 계획의 충실했고,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노력성, 활용 및 전파 가능성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산구, 희여재 누리길 조성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는 삼도동 석문산 희여재 일원에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내년 3월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5억 원을 희여재 누리길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누리길은 삼도초교·오문제·희여재·석문제·새날학교 구간 5km에 걸쳐 조성한다. 오문제·희여재 구간에는 꽃길과 안전 난간, 오문제와 석문제에는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누리길의 절정을 이루는 희여재에는 정자, 쉼터, 전용 기구를 갖춘 운동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임형택 기자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 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구례·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간
문화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